“질서 무시 조계종노조 일벌백계”

총무원 · 교구본사 · 중앙종회 연석회의 결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의 전 · 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조계종이 근본적인 종단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스님들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최근 발생한 조계종노조 현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과 각 교구본사주지 등 종단 주요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조계종노조 설립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한 조계종노조의 검찰 고발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조계종 중진스님들은 회의에서 종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공동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를 설립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노동위에 제소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발언을 근거로 前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단체협약과 고발 당사자가 종무원이 아닌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
조계종 중진스님들 유감표명
현안 대응할 TFT 구성 박차
종단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총무원 · 교구본사 · 중앙종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조계종노조에 대한 일벌백계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며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비롯해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 같은 결의에 따라 종단 현안 논의 및 종단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키로 했다. TFT 구성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헌종법 미비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하며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한 뒤 “종교단체에 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현재 조계종에 노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인 근로장려금 반대”

4월 22일 재무부 명의로 입장문 발표

올해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차원의 안내가 이뤄지는 가운데 조계종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 스님)는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 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종단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출가수행자로서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오신날 국회 불자들도 ‘한마음’

불교문화사업단, 정각회 초청 사찰음식 오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4일 ‘국회 정각회 및 직원불자회’를 초청해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문화체험 오찬을 실시했다.<사진>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과 부회장 이원욱 의원, 추미애 · 정갑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이제 곧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국회 불자들께 부처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정각회 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평화 구현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계 역할이 크다”며 “절대자유와 절대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불교 근본은 화쟁이다. 국회에서도 이런 뜻을 받아 화합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갑윤 · 추미애 의원 역시 “국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처님 지혜로 잘 헤쳐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오찬에서는 원행 스님과 원경 스님 등이 불교계 현안에 대한 고충을 정각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의원들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판문점 선언 1년, 평화가 되자”

KCRP 기념선언문 발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4월 22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화선언과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KCRP는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대화 노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SNS에 평화 위한 창의적 행동 전개 △종전선언 · 평화협정 등 이뤄지도록 함께 기도 등을 당부했다.

KCRP는 “100년 전 선조들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종교인평화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평화의 길에 동참하고, 스스로 평화가 돼주시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경찰관 공상 치유 ‘나눔 템플스테이’

조계종, 경찰청과 MOU 체결
전국 사찰서 템플스테이 지원

경찰관이 공무 중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을 앞으로 템플스테이에서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3일 경찰청과 ‘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번 협약에 따라 문화사업단은 경찰청의 직원 회복제도인 ‘힐링캠프’와 연계, 공상경찰관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 문화사업단이 최근 사회 소외계층에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나눔 템플스테이’의 일환이다. 문화사업단은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화사업단 측은 “공무수행 중 각종 사건사고로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입은 공상경찰관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산사의 자연환경과 명상 등을 체험하게 된다”며 “산사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한편,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상경찰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찰은 서울 금선사, 강화 전등사, 용인 법륜사, 남양주 봉선사, 양평 용문사, 영동 반야사, 예산 수덕사, 공주 갑사, 해남 대흥사, 김제 금산사, 장성 백양사, 성주 심원사, 김천 직지사, 고성 옥천사, 경주 기림사, 부산 흥법사 등이다.

협약식에서 원행 스님은 “공상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 상처 입은 분들이다. 공상경찰관에게도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며 “이번 템플스테이 지원이 공상경찰관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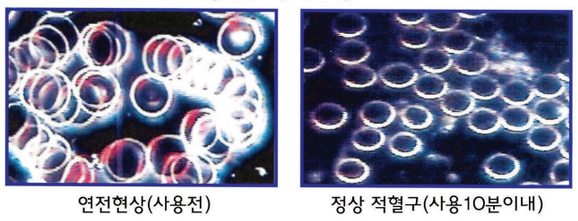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업무중 입은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경찰청 힐링캠프와 아름다운 산사에서 자연 등과 교감하며 심신의 위안을 얻는 템플스테이는 매우 닮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많은 공상경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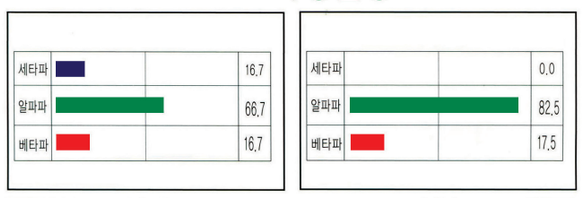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